

이탈리아 수비수의 ‘아름다운 충성’

구단 파산·강등에도 파르마 지키
2017~18시즌 1부 승격 이끌어
“내 심장이 시키는대로 했을뿐…”

현대 축구계에서 선수들의 이적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됐다. 정말 다양한 방식의 이적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계약 조건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팀에 대한 충성도’는 옛말이 되어가는 요즘이다.

헌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팀에 충성을 바치며 낭만을 보여준 선수가 있다. 바로 이탈리아의 수비수 알레산드로 루카렐리의 이야기다.

루카렐리는 국제적으로 주목받았던 선수는 아니었다. 1977년생인 그는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선발된 적이 없이 세리에A 중하위권 팀에서 경력을 보낸 ‘평범한’ 수비수였다. 지난 2017~18시즌을 끝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했다. 그런 그가 낭만적인 선수로 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

루카렐리는 2008년 파르마에 입단해 꾸준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2012년부터는 주장으로 활약한다. 하지만 얼마 뒤 루카렐리의 파르마는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다. 선수들은 유니폼을 직접 세탁해야 했고 구단의 버스 매각으로 원정 경기 이동비용도 지불해야 했다. 결국 2015년 파르마는 세리에A 최하위를 기록하며 파산에 이른다. 파산으로 인해



‘아름다운 충성’. 루카렐리가 영구결번이 된 자신의 6번 유니폼을 들고 감격해 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파르마 공식 SNS

파르마는 기존의 구단명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세리에D로 강등 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구단명 박탈과 아마추어 리그인 세리에D로의 강등으로 파르마는 혼돈에 빠졌다. 파르마 칼초 1913이라는 이름으로 재창단된 후 선수들은 하나둘 팀을

떠났다. 주장 루카렐리에게도 여러 팀에서 제안이 왔다. 그러나 그는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파르마에 남는다’라는 낭만적인 말을 남기며 세리에D에서 경력을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루카렐리의 파르마 칼초 1913은 이후 거짓말 같은 드라마를 쓴다. 2015~

16시즌 세리에D에서 무패 우승을 거두며 세리에C로 승격하더니, 2016~17시즌 세리에C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세리에B 승격에 성공한다.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파르마 칼초 1913은 기어이 2017~18시즌 세리에B에서 2위에 오르며 세리에A로 돌아가는데 성공한다. 100년이 넘는 이탈리아 축구 역사상 최초로 4부리그 팀이 1부리그로 3년 만에 승격하는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세리에A로의 승격을 확정지은 후 루카렐리는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남기고 은퇴를 선언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의 일부로 이 엄청난 팀의 일원이자 리더였다는 점, 그리고 이 아름다운 셔츠를 입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레산드로 루카렐리로서 충실히 살아온 것에 만족합니다”. 이후 루카렐리의 등 번호 6번은 파르마 칼초 1913의 영구결번으로 지정된다.

거액의 돈이 오가는 현대 축구계에서 팀을 사랑한다는 낭만적인 이유 하나로 팀과 함께 고된 길을 걸었던 선수. 자본으로 팀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꾸는 현대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충성심을 보여준 루카렐리의 드라마는 지금도 이탈리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이정빈 명예기자(한국외대 아랍어 전공) vientof14@gmail.com

매디슨 vs 그릴리쉬 EPL ‘제2 램제대전’?

2000년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이하 EPL)는 첼시의 프랭크 램파드와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라는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를 보유한 리그였다. 이 두 선수는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불리며 EPL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일명 ‘램제대전’이라고 부르며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더 나은 선수인지 토론하는 건 EPL을 보는 재미 요소 중 하나였다.

이들이 EPL을 떠나고 한동안 EPL에서 걸출한 미드필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최근 이들을 생각나게 만드는 선수들이 등장했다. 레스터 시티의 제임스 매디슨과 아스톤 빌라의 잭 그릴리쉬가 그 주인공이다.

1996년생인 매디슨과 1995년생인 그릴리쉬는 과거 램파드와 제라드를 연상시키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득점을 하는 능력까지 선보이고 있다.

22라운드 기준 매디슨은 20경기에 출전해 6골 3도움을 올렸다. 그릴리쉬는 19경기에서 6골 5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시즌 EPL에서 그릴리쉬보다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잉글랜드산 미드필더는 없다.

단순히 공격 포인트만이 아니라 키 패스에서도 두 선수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매디슨은 경기당 2.5개의 키 패스를, 그릴리쉬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경기당 2.7개의 키 패스를 성공시켰다. 이들보다 더 많은 키 패스를 성공시킨 EPL 선수는 3명뿐이다.

두 선수의 등장으로 프리미어 리그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늘었다.

이정빈 명예기자(고려대 국제스포츠 전공)

nwh1023@naver.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프로농구 라운드별 MVP ‘등번호 2번’의 법칙

허훈·최준용·송교창 모두 ‘2번’
행운 부르는 에이스 번호 눈길

2019~2020 현대모비스 프로농구가 4라운드 중반을 넘겼다.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크지 않고 중위권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각 팀의 순위 경쟁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

프로농구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몇 가지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중 하나가 외국인 선수 출전이 쿼터별 1명으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내 선수 활약이 두드러졌고, 특히 젊은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허훈, 최준용, 송교창이 라운드별 MVP로 선정됐는데 이 3명의 선수에게는 재밌는 공통점이 있다. 3명 모두 만 25세 이하이며, 등 번호가 2번인 것이다. 숫자 2를

등 뒤에 달고 뛴 그들은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1라운드 MVP 허훈은 1라운드 9경기 동안 평균 18.2득점, 6.2어시스트, 3.8리바운드로 활약했다. 지난 시즌 1라운드 평균 10.0득점, 4.6어시스트, 3.0리바운드에 비해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허훈의 이러한 활약은 부산 KT를 약 9년 만에 7연승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허훈이 부상으로 이탈하자 KT는 거짓말처럼 1승 7패로 부진에 빠졌다. 다행히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허훈은 11일 고양 오리온전에서 78-89로 뒤진 경기 종료 3~4분 전부터 연속 12점을 퍼부으며 극적인 역전승을 쟁겼다. 이날 3점 슛 5개를 포함해 23점, 6어시스트로 펄펄 날면서 팀을 연패에서 구해냈다.

한편 2라운드 MVP에 선정된 최준용은 2라운드 10경기에 출전해 10.7득점,

2.7어시스트, 6.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서울SK의 다양한 수비 전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팀에 기여했다. 팀은 최준용의 활약에 힘입어 2라운드 7승 3패를 거뒀다.

3라운드 MVP 송교창은 9경기 동안 13.7득점 4.2어시스트 6.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3라운드에서 출전한 9경기 중에서만 경기를 제외한 8경기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전주 KCC는 3라운드 8승 1패(0.889)를 기록하며 3라운드 승률 1위를 달렸다.

이 정도면 숫자 2는 행운의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에이스를 뜻하는 새로운 번호가 될 수도 있다. 허훈, 최준용, 송교창의 뒤를 이을 또 다른 2번 MVP가 탄생할 수 있을까.

박지윤 명예기자(덕성여대 식품영양 전공)

3745702@naver.com



KT 허훈

SK 최준용

KCC 송교창



주택관리사 상대평가 대비…“실전처럼 준비해야”

주택관리사 시험이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전환된다. 상대평가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60점 이상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었던 시험에서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높아야 하는 경쟁의 장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평가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교육기업 에듀월은 ‘정확한 나의 위치’를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했을 때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알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실력을 완성해야 한다. 특히 실전과 같은 고 퀄리티의 문제풀이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추천했다.

이와 관련 에듀월은 ‘주택관리사 전국 실전모의고사’를 오는 27일(월)까지 진행한다. 에듀월의 주택관리사 전국 실전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진행으로 수험생들이 1분 1초의 낭비 없이 실전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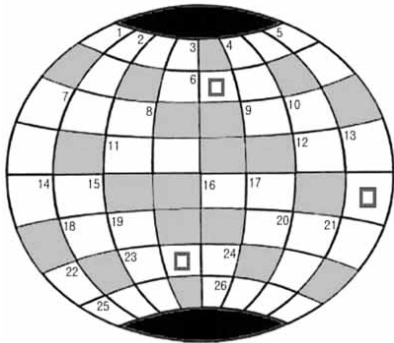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40명의 출제 교수진과 에듀월 연구단이 합격하

기 위한 필수 문제를 엄선해 고 퀄리티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 하다.

특히, 에듀월 전국 실전 모의고사는 시험 후에는 개인별 맞춤 성적 분석을 제공해 효율적인 학습을 지원 중이다. △회차별 성적분석 △단원별 약점보완 솔루션 △나만의 맞춤형 오답노트 등이 포함된 성적 분석으로 꾸준히 약점을 보완하고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

에듀월 주택관리사 수강회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모의고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월 27일까지 신청 및 응시할 수 있으며, 성적확인은 1월 28일 오후 2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겨우 살아남. 04. 다치고 병든 사람. 06. 임금에게 올리는 진짚상. 07. 비산 이자로 얻은 빚. 09. 다툼질을 그치고 풀. 11. 렌즈나 거울을 써서 빛을 한곳에 모음. 12. 자물쇠를 여는 쇠붙이. 14. 어떤 목적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는 일. 16. 신변(身邊)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로 시중을 들. 18. 옛 문헌 등을 상고하여 증거를 가지고 밝힘. 20. 손윗사람에 대한 사랑. 23. 끓여서 식힌 소금물에 오이를 담가 익힌 반찬. 25. 허영에 들뜬 마음. 26.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제멋대로임.

■ 세로 열쇠

02. 어느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03. (끓이거나 소독하지 않은 상태의) 샘에서 나오는 맑은 물. 04. 실물을 보지 않고 추측과 생각으로 그린 그림. 05.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함. 07. 저위도에 위치하고 표고가 600미터 이상으로 높고 한랭한 곳. 08.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는 일. 10. 몸의 열을 풀어 내림. 13. 쇠로 서너

개의 발을 만들고 자루를 박은 갈퀴 모양의 농기구. 15. 물품을 창고에서 꺼냄. 17. 누울 때 발을 뻗는 곳. 19. 몹시 미워하는 마음. 21. 사랑에 있는 방. 또는 사랑으로 쓰는 방. 22. 건물·시장·성곽 등의 황폐된 터. 24. 지구 표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한 축척(縮尺)에 따라 평면상에 나타낸 그림.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를 이어 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가 이름이 됩니다.

